

哲學的 宇宙觀

權稷周

「群衆은 決코 哲學者가 안이다」라고 한 「푸라톤」의 말은, 現今에 있어서도, 適用되는 것이다. 사람은 大部分, 從來의 여러 가지 傳統 가운데에서, 그들의 宇宙觀을 獲得한다. 그러나, 哲學의 基礎 위에선 宇宙觀을 探求하는 사람은, 大膽하게 自己自身の 理性 위에, 그것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모든 傳統의 意見을 試驗的으로 疑心하여 보아야 한다. 그리고 直接自明의 이안이며, 또는 證明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던지 承認하지 않으면 안 된다. 哲學이란, 어떤 卓越한 思索家의 個性을 가진 精英(Blite)의 確定的事實임으로, 哲學의 宇宙觀도亦是 歷史의 經過 위에 있어서, 決코 無勢力한 것은 안이다. 何故인가 하면, 모든 歷史는 本質的으로, 精英들의 한 事象이며, 그들의 模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哲學의 精英의 影響을 例舉하여 보면, 即 教會敎理에 波及한 「푸라톤」, 「우리스토테레쓰」의 影響, 또는 獨逸의 政治的 軍事的 敎育의 指導者들에게 波及한 (Kant, Fichte, Schelling, Hegel) 등의 有力한 影響이다. 지금으로부터 조금 前까지는, 獨逸 哲學 그 自身은, 實로 어떤 宇宙觀의 組成을 斷念하였다. 哲學은, 限十年 동안, 實證科學의 前시提 方法及 目標을 試驗하면서, 그것의 侍女로서 盡力하였다. 이와 갓치하여, 十九世紀末葉의 哲學은 大概是 認識論과 經驗心理學으로서 進展되었다. 그러치만은 哲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教會의 信仰의 侍女가 안인 것가지, 單純히 科學의 侍女도 안이다.

最近十年間의 哲學은, 이러한 見地로부터 脫出하여, 그 本質에 있어서, 또는 그 目標에 있어서 매우 變化하였다. 即 哲學은, 의론바 「形而上學的」問題의 解決을 直接으로 指導하기爲하여 더욱 廣汎한 範圍에 亘하여, 確乎嚴密한 方法을 獲得하였다. 實證科學과 協同하면서 進展하였으나, 그러나 그것 및 從에서 指導를 맞지는 안이다.

이론바 實證論과 新칸트派와 歷史主義의 세 가지 큰 思想傾向은 各種의 形而上學은 不可能하다고 主張한다. 果然, 사람은 形而上學의 理念과 形而上學의 感情을 形成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選擇하지 안은다. 이 形而上學의 理念은, 即其自身으로서만 存在하는 存在者(Ens per se)와, 또는 다른 모든 存在者가, 거기에 依屬되어 잇으

며, 人間自身과 宇宙의 基礎가 되는 바 理念이다. 그러나 人間은, 意識的 또는 無意識的으로, 自我性癖 또는 傳統에 依하여, 恒常必然的으로 이런 理念과 感情을 갖는 것이다. 그는, 다만 絕對者로부터, 어떤 合理的 理念을 形成할 것인가, 또는 不合理的 理念을 形成할 것인가를 選擇할 뿐이다. 그러나 人間의 思惟의 意識以前에 가질바, 어떤 絕對의 存在者의 領域은 人間의 本質에 屬한 것이며, 自我意識 世界意識 言語及 良心으로써, 어떤 分裂하기 어려운 構造를 形成하는 것이다. 人間은, 宇宙의 感性的 外殼을 適切하게 吸取하는 까닭에, 이 領域의 明確한 意識을, 人爲的으로 排除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境遇에는, 絕對者의 領域으로의 志向은, 持續하여 간다고 하더라도, 領域自體는, 空虛한 限定的 內容으로서 殘存한다.

사람은, 이 絕對의 存在者의 領域自體 또는 어떤 最高善의 領域自體를 正確히 認知함이 없시, 다만 그의 生活 가운데에서, 絕對者인 것 「처럼」 取扱하는 바 어떤 有限의 事物 또는 善으로써, 이것을 實現할 수도 있다. 그러나, 萬一 사람이, 이러한 精神狀態로부터 超出한다고 하면, 相對의 位置에 있는 事象을, 有限世界로 돌려보낼 것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絕對者의 領域이, 다시 出現되는 것이다. - 따라서, 精神의 狀態에 있는 人間도, 여기에서 비로소, 獨自的으로 絕對者에 對하여, 哲學的 思索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絕對者에 對한 自由그러운 哲學的 探究는, 形而上學이 恒常現實的으로, 存在하는 까닭에, 可能한 것은 안이다. 人間은 僥倖히, 尖銳히야 指摘할 수 있는 限界로써, 모든 事物의 根據를 認識하는 合法則的 認識手段을 占有하였다. 또한 그는, 그의 人格의 核心 가운데에, 事物의 根據에 關한, 分當을 獲得하는 能力을 갖고 있다. 거기에 이르는 바 길은, 다음에 指示될 것이다.

세 가지 種類의 知識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은, 即 支配知識 또는 實行知識, 本質知識 또는 構造知識, 形而上學的 또는 救濟知識을 갖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의 知識은, 單只 그들 自身을 爲하여서만 存在하는 것이 안이다. 이것은, 어떤 存在者를 變形식히 하는데 使用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事物이던가 또는 人間 自身의 構成形式이던가, 또는 絕對者이던가를 變形식히 하는데 使用되는 것이다.

—

第一의 種類의 知識, 即 實行知識은 支配知識은, 自然, 社會及 歷史에 關한 吾人의 可能的 技術的 力能에 提供되는 것이다. 이 種類의 知識은 全西洋文化를 지고가는 實證的 專門科學的 知識이다. 이 知識의 最高目標은, 可成的, 吾人을 둘러싸인 모든 現象을, 一定한 位階에 整理配置하는 空間的 時間的 接觸의 諸法則 即 그것의 偶然的 現在-此處-存在(Soseing)의 諸法則을 發見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런 法則을 決코 法則에 對한 特殊한 快樂을 가지기 때문에 探究하는 것이 안이라. 宇宙와 우리 自身을 支配하기 爲하여 探究하는 것이다. 우리는 合法則的으로 反覆하는 것만을, 正

確히豫言할수가있으며, 紗라서豫言할수있는것만을支配할수가있는것이다. 이런法則을發見하기가, 매우困難한것이다. 웨그런고하면, 科學은, 나날히새것을發見하며, 낡은것을修正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런法則을發見하는것은, 언제던지原則的으로可能하지안으면안된다. 이것을發見하는基礎는, 確實히, 人間及動物에잇어서, 衝動및테, 쏘는衝動及欲望體系의方向가운데形成된바, 우리의모든可能的觀察測定에適用되는여러種類의感覺의機能 (例하면視, 聽, 嗅等)이다. 그런故로, 有機體의力能實行은, 「同樣의原因에는同樣의結果」라고하는規則에依하여同形的으로反覆하는, 그것의諸要素와現實世界の測面に만關與할수가있다. 그럼으로, 吾人뿐만아니라, 動物그것의모든可能的感覺的經驗은, 確實히現實의非同形的部分보담도, 同形的部分을더만히알리워주는內的諸法則에依하여支配되는것이다.

現代의物理學者들이말한바, 究極的要素의自然法則은다만「큰數」의法則과如한純粹한統計的種類에不過하며, 쏘는넛적物理學의必然性的法則은, 單只人間的製作物에서지나지못한다고한것은, 正確히以上의事實關係에一致되는것이다. 쏘는「칸트」가敎示한것과갓치, 決코感覺內容에서由來하는것이안이라, 可能的個別內容의豫備設計及圖式으로서先行하는바모든感覺的經驗에서由來하는空間直觀과時間直觀이라는것은行爲及行動에對한吾人の自發的自我運動의可能性的總體概念이며, 吾人の自發的自我形變의可能性的總體概念이다. 우리는, 처음으로吾人の有機的運動可能性을, 事物의運動可能性으로서, 事物에, 서로移置하는것이다.이것은, 類推的으로時間에도成立된다. 모든運動可能性及變化可能性的總體概念即事實的으로存在한空間과時間이라고하는것은, 根本的으로는實在에對한吾人の支配意志에提供되는것이다. 單純히認識된本質이라고하는것은, 何等의實在性을갓지못한다. 거기에서는, 實在性은, 吾人の努力에抗對하는바모든總體概念을意味한다.

吾人은, 人間의自然的宇宙觀이, 그가운데에서조을고잇으며科學도오래동안거기에拘束되어잇는바, 誤謬의量에對하여測定하여볼것이다. 이런誤謬는, 우리가空間及時間을, 萬一우리가事物과實質과勢力의潮流를破棄한다고하면, 活動能力이업시, 우리로부터獨立的으로存在하며, 쏘는存續하는바即自的으로存在하는無限的「空虛形式」이라고생각하는데에成立한다.-「空虛形式」그內部에잇어서는, 有限世界와世界過程은, 다만한개의奇異한「섬」을形成하는데에서지나지못한다. 이와同時에, 吾人の自然的實證科學的宇宙創造의存在의모든基本形式은, 決코吾人の理性的의適合에依하여서만制約되는것이안이라, 自然에對한吾人の生動的支配的衝動에依하여서도制約되는것이다.

二

第二의 種類의 知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第一哲學」이라고 稱한 哲學的 基礎學 即 모든 存在한 것의 存在樣式及 本質構造의 學이다. 이 本質知識에 잇서서, 支配知識에 反對되는 知識의 種類와, 거기에 一致되는 存在의 種類의 關한 問題 (獨特한 方法的 哲學的 研究의 分野에 亘하여)는, 조금 前에, 「훗셀」及 그의 學派에 依하여, 다시 發見되였다. 前述한 바와 갓치, 支配知識에 잇어서는, 偶然의 世界現實及 그것의 本質의 理念의 存在 (Soseing)의 空間的 時間的 符合의 法則이 發見되였다. 이와 反對로, 第二의 研究 方向에 잇어서는, 偶然의 時空位置와 偶然의 으로 그러케 잇는 것이 던가 或은 달르게 잇는 것이 던가는, 實로 嚴密한 「方法的」으로 除外될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갓튼 問題를 提起할 것이다. 即 宇宙란 무엇인가. 例하면 모든 自然狀態에 잇는 이론바 肉體란 무엇인가. 모든 自然狀態에 잇는 「生物」이란 무엇인가, 그것의 本質狀態로부터 不變의 構造로 의 植物動物及 人類의 本質은 무엇인가. 또는 「思惟」란 무엇인가, 「愛」란 무엇인가. 「美感」이란 무엇인가(實際로 이런 行爲가 出現되는 데 잇어서는 特殊의 個人의 偶然의 時間的 意識潮流로부터 獨立하여) 라는 等問題이다.

그러면, 이런 種類의 認識과 探究와 의 特質은 무엇인가. 첫 재로 宇宙에 對한 支配態度의 位置에, 모든 渴望의 衝動的 態度의 가장 可能的한 除去에 依한 探究가 代入되는 것이다. 何故인가 하면 衝動的 態度라는 것은, 前에 말한 바와 갓치, 모든 實在 印象의 條件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偶然의 現在-此處-存在의 모든 感覺의 知覺의 成立에 對한 條件이며, 空間及 時間의 豫備設計에 對한 條件이기 때문이다. 積極的으로 말하여 보면, 自然法則을 求하며, 合法則의 關係가운데 나타나는 本質을, 意識의 으로 看過하는 支配應度 대신에, 宇宙의 原現象及 理念을 探究하는 愛의 態度가 代置된다고 하는 것이다.

둘재로는, 이런 態度에 잇어서는, 事物의 實化的 現實의 存在(Dasein)即 吾人의 努力과 行動에 對한 그것의 可能的 反對性은, 確實히 除外되는 것이다. 이와 同時에, 우리에게 對하여 意味知覺인 것처럼 보이는, 다만 偶然의 인 現在-此處-存在라는 것도 亦是 除外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想像의 事物에서라도 原則的으로, 本質認識을 할 수가 있다. 例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어떤 活動寫眞의 假現運動 又是 잘 描寫된 개(犬)로써, 어떤 運動一般 又是 生物一般의 本質(Essentia)에 屬한 究極의 直觀的 構成要素를 把握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셋재로는, 本質認識은, 모든 經驗으로부터 獨立하여 잇는 것은 안이나, 經驗의 量과, 이론바 「歸納法」과는 獨立되어 있다. 그것은, 現實에 對한 觀察及 測定과 갓치, 모든 歸納法以前에 先行되는 것이다. 그것은, 獨特한 例證의 境遇에 實行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本質認識 例하면 「生活의 本質」이라는 것이, 한번 獲得된다 고 하면, 그것은 學術語로 「先天的」(apriori)이라고 말하는 것과 갓치, 無限의 普遍

性及必然性가운데의本質의偶然的또는觀察할수잇는諸事實에妥當된다.-純粹數學에, 可能的自然物의多樣성과, 그것에의先在的必然的觀念의關係를複製하는 것이다.

그러나, 넷재로는, 本質認識及本質關係의認識은, 이것때문에, 感覺的經驗과, 그것의道具的助援에依하여, 吾人에接近할수잇는現實世界의極小한範圍를超越하여妥當한다. 이런認識은其自身으로, 又是其自身가운데存在한存在者에도妥當한다. 이것은, 「先驗的」擴張을갖고잇으며, 따라서, 모든「批判的形而上學」의 發展舞臺가되는것이다.

다섯재로「第一哲學」의本質認識은, 다만間接的인「悟性」推理에歸着되는感覺的所與에關한吾人의認識其自體의範圍와는, 判然히區別되는바固有한「理性」認識이다. 「悟性」又是「知性」은, 固定的生來的本능과聯想的記憶을超出하여, 새로운諸狀態에, 自身을適應식히는어선有機體의한能力이다. 이能力은, 單只우리人間만가지고잇는것이안이라, 動物도亦是(低劣한程度에잇어서)가지고잇는것이다. 예를들면, 猿猩이果實을싸기爲하여, 何等의思慮가업시, 한 개의모둥이를, 제팔의延長으로서利用하는것과갓튼것이다. 그럼으로, 推理的悟性이, 生活衝動, 營養衝動, 種族衝動權力衝動又是環境의刺戟에對한 實踐的反應에所用되는限에는, 그것은 아즉特殊的人間的의것이안이다. 萬若, 知性(動物에잇어서는다만狡猾奸策일것뿐) 이, 理性即經驗의偶然的事實우에임이完成된先天的本質認識의適用에所用될때에는, 또는客觀的價值秩序의關係가운데의가장高級的인洞察即客知와어선道德的現想에所用될때에는, 그것은, 비로소特殊的人間的의것이된다.

כות호로, 이本質認識은, 二重의適用性을갖고있다. 本質認識은, 모든實證科學(數學, 物理學, 生物學, 心理學等)의여러領域에對하여, 그것의研究範圍의最高前提를規定한다. 本質認識은, 實證科學의「本質公理學」을 形成한다. 그러나 數學에關하안, 이本質認識은, 일즉, 헤-겔이「絕對者로의窓」(Fenster ins Absolute)이라고稱한것과꼭갓튼것이다. 何故인가하면, 宇宙에關한모든것과, 人間이宇宙를把握하는活動에關한모든것은, 實在한自然(純粹한原現象과理念)인싸담이며, 우리가, 事物及動作의偶然的時空役割로부터눈을돌릴때에, 恒久히存續하는바모든것은, 實證科學의說明에對하여, 한 개의넘기어려운限界를設定하는싸담이다. 純粹한本質其自體던지, 또는本質의現實的存在던지는, 일즉, 이實證科學에依하여, 說明되지못하엿으며, 理解되지못하엿다. 實證科學의職能의成就是, 嚴密한注意를가지고, 本質問題(例舉하면生命이란무엇인가)를自己領域에서除去하는데에依存되는것이다. 여기에서, 비로소本質構造와 宇宙의現實的存在와의兩者는, 함께絕對的存在者에, 換言하면宇宙及最後線의人間自身の

共通의最高根據에還元되는것이다.

哲學에依한, 모든形而上學의宇宙觀形成의最高目標은, 다음과같다. 即其自身에依한絶對的存在者는, 그것이「第一哲學」에서發見된宇宙의本質構造와符合되며, 또는吾人の努力에잇어서, 平凡하게된, 宇宙와어떤偶然的存在一般의實在的現實的存在와一致된다고思惟하며, 直觀하는일이다.

最高存在의두가지의基本屬性, 前述한바에依하여 理解할수가있다. 理念構成의無限의精神, 또는宇宙와그自體에서釋放되는理性和結合한人間其自身과의本質構造는, 最高存在에歸屬되지안으면안될것이다. 둘째로는, 非合理的으로定立된現實的存在와偶然으로定立된本質의理念의存在와非合理衝의力(Drang)(有機의自然의힘의中核及分野와, 모든生動의形式에서의個體及宗族의生死에서韻律的으로낮 하나는生命이, 거기에根着되어잇는바動的이며想像力이豐富한勢力)이다. 여기에서, 最高存在의이두가지活動屬性의漸進的貫徹은, 우리가「宇宙」라고稱하는바時間에의모든歷史의意味를構成하는것이다. 이와同時에, 이貫徹은, 理念及最高價値에對하여, 本源的으로, 盲目的인創造的衝力の生長의靈化로보이며, 다만他面에서만, 本源的으로無力하며單純한理念으로서措寫된, 無限의精神의生長의權力獲得으로보인다. 이過程은, 가장緩慢한理念과道德的價値만이, 關心과激情과就中그것들우에成立된諸制度에關한것과增加的으로關係를맺는것으로因하여, 그가운데서, 어떤「힘」을獲得하는바人間歷史우에確實히進行되어있다.

三

이것으로써, 우리는, 第三種類의知識即形而上學의知識又是救濟知識의中心에到達하는準備를하는것이다.「第一哲學」即宇宙와自我와의本質學은, 實로, 이認關의發展舞臺다-그러나, 形而上學其自體를設定하지는안은다. 爲先첫재로 現實에關한實證科學의結果와本質에屬한第一哲學의結果와의連結, 또는이兩者와價値學(一般價値論, 美學, 文化哲學)의結果와의連結은, 形而上學으로引導하는것이다. 다음, 그것은實證科學의「限界問題」의形而上學인第一位의形而上學(「生」이란무엇인가. 「物質」이란무엇인가)에導入하며, 또는그것을通하여絶對者의形而上學인第二의形而上學에導入한다.

그러나, 數學, 物理學, 生物學, 法律學, 歷史學等の限界問題의形而上學과絶對者의形而上學과의사이에는, 現今에잇어서, 漸々關心과意義를갖게된, 한가지重要한學問即「哲學的人間學」이存在하는것이다. 그것의問題는, 일즉 「칸트」(論理學)가, 모든哲學的基本問題는, 그가운데合流된다고말한바問題即「人間이란무엇인가」라는問題다. 「칸트」以前의西洋의形而上學全體는, 宇宙의存在(Sein des Kosmos)로부터또는對象存在(Gegenstand-Sein)로부터突出하여,

絶對的으로存在한存在가운데서試驗하고있었다. 이것이「칸트」가, 그의理性批判(先驗的演繹論)에서, 한 개의不可能한企圖라고表明한것이다. 그는, 아래와갓치敎示하였다. 即內의世界的對象의存在는, 外의世界的 그것과갓치, 特別히人間과關係를맺는다고한것이다. 모든存在形式은, 人間の存在(Sein des Menschen)에依屬되는것이다. 모든對象의世界及그것의存在樣式은「存在自體」(Sein an sich)가안니라, 다만, 이存在로부터서의反對投影及截斷에該當한人間の精神的及肉體的全體機構에서지나지못한다. 「哲學的人間學」이人間の本質形象가운데서, 第一문저發見하는것은-本源的으로人間の中心에서湧出하는精神的活動의再延長으로서-모든事物의最高根據의屬性우에나리는, 한推論이다.

이推論法은「本質認識」과갓치現代形而上學의第二의 重要的發展舞臺다. 우리는, 이것을「先驗的推論法」이라고命名하고싶다. 이것의法則은, 다음과갓다. 宇宙其自體의存在는人間の偶然的現實的存在及經驗的意識에서, 確實히獨立하여있다. 그러나, 嚴密한本質關係는, 精神的活動의어떤部類와우리가, 이部類에依하여接近할수있는一定한存在領域과의中間에成立된다.-우리의暫有的本質에, 이接近을주는바活動에對한모든것은, 一切事物의基礎에歸着되지안으면안된다. 或은, 例를들어말하면, 萬一우리가, 接近할수있는空間의存在를, 人間の어떤運動衝動에依屬된것으로서說明할수있을새엔, 그러나, 他面에잇어서, 數만흔人間이, 이現實的存在가운데낫탄하기前에, 空間的으로配置된어떤世界가, 임이存在하였다고하는것을許容하지안으면안될새엔, 우리는如何히하여야조할것인가. 或은, 萬一우리가, 價値秩序其自體를價値秩序의變化만흔人間意識에서分離시키지안으면안될새엔, 그러나, 이럼에도不拘하고, 價値秩序가어떤愛의精神을가짐이업시는, 其自身에잇어서矛盾된다는것을許容하지안으면안될새엔, 어찌케할것인가. 쏘는, 類推的으로思惟者업는獨立的理念秩序, 或은定立하여주는衝력이업는實在는矛盾이안인가. 우리는, 短命한우리人間과는獨立的으로存在한存在領域을, 人間가운데서能動的이며, 人間에依하여生長하는原存在者의一個屬性이안이면안될, 特殊的超越的精神的活動과關係를매겨주는것맞게는마우것도업다. 우리는, 어떤境遇에잇어서든지, 거기에서, 諸對象의人間에의從屬性과, 그것에서의同時的獨立性を發見한다. 우리는, 쏘한, 아래가치말할수있을것이다. 即, 人間은小宇宙인싸담에, 又是存在의모든本質種類即物理學的化學的生物的精神的存在가人間の存在가운데서偶合하며交叉하는싸담에, 人間에게서도亦是「큰世界」即大宇宙의最高基礎가. 研究될수가있다는것이다. 그럼으로적은神(Mikrotheos)으로서의人間の存在(Das Sein des Menschen)는, 쏘한神(Gott)으로의最初接近이다. 그런故로現代의形而上學은, 발서宇宙論及對象形而上學이안이라, 形而上學의人間學及行動形而上學이다. 이와同時에重要的洞察

은, 對象으로서 가능한 모든 것의 最高根據는, 그自身으로, 對象可能的이안이라, 다만永遠히自己自身을再生식히는存在의屬性으로서의完成될수있는純粹한現實性뿐이라고보는것이다. 그런故로, 神에唯一한接近이라고하는것은, 理論的즉無對象觀的察이안이라, 神에對한, 또는神의自我實現의生成에對한人間의人格의活動的插入이다. 그것은, 精神의理念構成的活動과人間의衝動生活에서追跡할수있는衝動(Drangwucht)과의永久活動의共同實行이다. 이두가지屬性의共通의이며가장純粹하며가장重要的有限的表現은「人間」이다.

人間의精神의「人格」은何等의實質的物體도안이며, 對象의形式에關한存在도안이다. 사람은오즉能動的으로, 그의人格에集中할수가있다. 何故인가하면, 人格은獨自的無限의精神의一回的個別的自我集中을恒常表現하는바, 又是客觀的世界의本質構造가, 거기에根着되어있는바精神의活動의, 한構造(Gefuege)인까닭이다.

人間의個別의人格은, 또한直接으로, 永久的存在及精神가운데根着하여잇기때문에, 普遍妥當의眞인宇宙觀은, 存在할수가업고다만個別的으로妥當하며同時에, 그것의完全性及妥當性の程度에따라서, 歷史的으로制約된內容의宇宙觀만存在한다. 그러나各自(어떠한사람이던지)에依하여, 「그」의形而上學的眞理를發見할수있는, 어떤嚴密한普遍妥當的方法이, 存在할수잇을것이다.

(完)

附記 本稿는 Max Scheler의 論文集 Philosophische Weltanschauung (1929)에 실린同名の論文을譯한것이다.